

국내시장에서 M&A가 필요한 이유

현재까지 국내시장에서의 M&A는 IMF 경제위기로 발생한 '부실기업들의 생존문제 해결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더구나 외국자본에 의존한 M&A가 주를 이뤄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M&A는 기업생존문제와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M&A의 주요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M&A는 기업경영의 목표가 아니라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세계 기업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기업경영 전략의 수단 또는 도구로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M&A는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시도하는 일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의 수단이 아니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 중심지 구축을 위해 외국자본유치를 수월케 하고, 신뢰성 및 적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여건 및 의지표명의 증거로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 시장침체로 인해 수익모델이 없는 벤처기업들이 공모자금 고갈 등으로 급속히 부실화되는 추세에 있어, 이들을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경우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심각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시장구조조정 차원에서의 M&A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넷째, 기업의 영속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요구되지만, 기업내부자원의 활용에 의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외부자원 활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제품 및 기술의 국제화 및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도 M&A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신기술 개발 속도 및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되면서 신규 투자에 의한 시장참여보다 기업매수에 의한 시장참여가 더욱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기존기업의 인수를 통해 시장 참가자와의 마찰을 경감시킬 수도 있고, 피인수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어 합병으로 인한 생산규모의 대형화는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여섯째, 기업인수를 통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현금흐름을 보다 원활히 하고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도 적응력이 제고되어 경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인수합병은 자금조달 능력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향후 국내기업간의 M&A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발맞추어 국내 M&A관련 법령 및 구조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다음 호부터 현재 국내 M&A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국내 M&A 시장의 개선과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KOVN**

Deloitte & Touche

딜로이트투쉬 기업금융(Deloitte & Touche Corporate Finance)은 기업 금융 관련 자문서비스에 특화된 국내 최대의 기업금융 전문회사로서 7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금융서비스 (M&A, 외자유치, 민영화, IPO등)와 기업 구조조정서비스, 부동산서비스 및 거래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전반의 전략적인 재무 자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